

## 2020 정기구독, 지금 신청하세요!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이 만드는

# 격월간 한국 YWCA



구독료 1년 2만원  
문의 02-774-0230 이메일 ywcapr@hanmail.net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군산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YWCA 정책 제안

**특집** 2020 회원YWCA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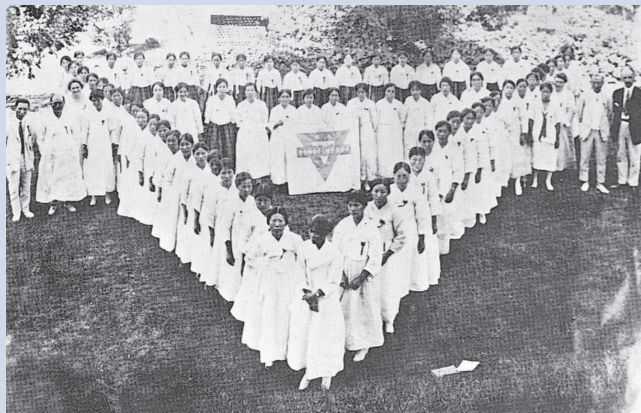
**이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성**  
북경선언 25주년, 여성운동 회고와 전망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 YWCA 총회



“불우한 상황에 처한 온 국민과 특히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YWCA는 반드시 창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기독교 교단이 받아들임으로써 1922년 6월 13일부터 12일 간 서울 충정로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하령회를 갖게 되었다.

YWCA 최초의 총회는 1922년 6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열린 발기총회다.

1921년 봄부터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 등이 의기투합하여 서울에서 여자기독교청년회 기성회 조직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임을 가졌다. 1922년 3월 27일 경성여자교육협회에서 제1차 발기회를 열어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기로 결의, 제2차 발기회(4/20, 이화학당), 제3차 발기회(5/4, 중앙YMCA회관)로 Y조직의 기운을 성숙시켰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12일 동안 서대문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령회를 개최한 후, 6월 22일과 23일 발기총회를 열었다.

연합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주관한 총회(정기대

회)에서는 각 지방 학생 대표들의 보고와 YWCA의 책임, 사업에 관한 진지한 검토와 제안, YWCA가 타 단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격의 없이 토론했었다.

1923년 8월 18일부터 서울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가진 제2회 하령회에서는 ‘연합회 기성회’ 명칭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이하 조선Y연합회)로 변경하고 연합회 헌장과 회원이 사용할 세칙을 통과시켰다.

1924년 5월 이화학당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김활란을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YWCA 실행위원회(YWCA World Committee)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게 하여 조선YWCA를 세계YWCA에 가입 신청하도록 했다. 그 결과 조선YWCA는 창설 2년만에 세계YWCA 개척회원국(Pioneer membership)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1930년 제8회 총회에서 매년 개최하던 총회를 2년에 한 번씩 열기로 하고, 이 해에 ‘YWCA 회가’를 만들었다.

일제 강점 하에서 YWCA 지도자들은 조선YWCA의 명맥과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0년 원산에서 제13회 총회를 마지막으로 1941년부터 간판을 내리고 휴면으로 접어들었다.

해방 후 1946년 3월부터 한국YWCA 재건을 준비한 후 1947년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교외 진관사에서 제14회 총회 및 하령회를 열었다. 1948년 제15회 임시 총회 및 하령회에서 총회와 함께 열린 하령회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헌장을 개정했다. 1950년부터 총회를 전국대회로 명명했다.

1964년 제22회부터 3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를 개최했으며, 2009년 전국대회에서 매 2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헌장을 개정했다.

2011년 연합회가 사단법인화 함에 따라 제1차 연합위원회를 총회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했다. 이후 2013년에 전국대회에 일부 남아있는 총회의 기능을 정기총회로 이관함으로써 사단법인 총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출처\_ 한국YWCA 80년사)

## 2020. 1·2 한국YWCA



### 표지이야기

1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한국에서 열린 제19회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참가자들이 ‘여성혐오와 한·일 미투운동’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다.

### 2020년 3·4월 주요일정

#### 3월 4일(수)

신임회장 연수

#### 3월 5일(목)

2020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3월 9일(월)~14일(토)

제64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

#### 3월 10일(화)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탈핵 캠페인

#### 3월 19일(목)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4월 21일(화)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제56권 제1호 통권 565호

2020년 2월 13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_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GO 100 YWCA’ 기독교 여성 운동체로 거듭나야 | 한영수
- 05 **말씀 묵상**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 김민지

### 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 06 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김은경
- 08 ② 한국YWCA 정책 제안
- 12 ③ YWCA 유권자 선언
- 13 ④ YWCA 2020 총선 가이드라인

### 특집 2020 회원YWCA 정기총회

- 14 ① 사진으로 보는 정기총회
- 18 ② 회원YWCA 신임회장·5부지역위원장 소개

20 **이슈** 바이러스, 이번이 끝이 아니다 | 강양구

22 **탈핵** 에너지 전환과 자립사회 | 이진형

24 **평화** 2020년,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로 | 최수산나

26 **여성** 북경선언 25주년, 여성운동 회고와 전망 | 마정은

28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 김기태

30 **청년토크** 대한민국에서 비건으로 살아남기 | 대학·청년Y

32 **이달의 현장 ①** Y-틴 전국협의회 | 오은지

34 **이달의 현장 ②** 제19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 이은희·김예지

37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미안해요, 리키> | 이윤숙

39 **연합회 소식**

41 **성명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한다

42 **회원YWCA 소식**



한영수  
연합회 회장

## ‘GO 100 YWCA’ 재구조화 이루고 기독교여성 운동체로 거듭나야

2020년은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한국YWCA 운동조직체로서 법인 재구조화 선포와 실행을 통해 ‘YWCA 100년 재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첫해입니다.

매년 2월에 개최되던 (사)한국YWCA연합회 총회는 연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 감염의 위협으로 연합회의 총회가 연기되는 비상상황을 맞았습니다. 현재 3월 5일로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총회가 늦어진 상황만큼이나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부속시설 신운영 정책안과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국YWCA를 이루는 데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YWCA 100주년을 향하여 미래기획과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2018-19년 YWCA는 탈핵생명,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의 4대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젠더관점의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으로 지역여성운동을 강화했습니다. 탈핵, 성평등의 중점운동을 젠더관점에서 통합 운영하며 이슈 대응에 주력하면서 한국YWCA 지속가능한 미래준비 기획과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연합회는 지난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YWCA 100년의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고, 조직 내외부적으로 독립적 지위와 책임있는 역량을 가진 기독교여성 시민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YWCA의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 ‘지역’, ‘여성’, ‘청년’을 YWCA 운동의 키워드로 삼고 조직 재구조화와 실행을 통해 100주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YWCA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기획과

구조 개편은 2020년 이제, 법인 전환을 포함한 회원YWCA 재구조화와 YWCA부속시설 신운영정책 실행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의 첫걸음을 땀 차례입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이후 지속가능한 Y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YWCA 세 개 법인과 회원YWCA가 YWCA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고,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구조로 재정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에서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YWCA 정의, 평화, 생명의 기치 아래 53개 회원YWCA는 ‘자치성’, ‘지역운동성’, ‘책임성’, ‘연대와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여 지역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전환을 통한 회원YWCA 재구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회원Y는 본부 중심의 지역운동을 전개하되 핵심리더와 활동가의 지역 조직 및 운동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 회원Y는 신운영 정책에 따라 부속시설을 점검하여 YWCA부속시설 운영 목적을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회원Y부속시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연합회 또한 한국YWCA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한 후원회, 연합회, 복지사업단의 세 개 중앙법인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연합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회원Y간 협의 구조를 개편하여 연합회와 회원YWCA의 협의체제를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한국YWCA 10만 회원은 100년을 향한 거룩한 도정에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성 있게 살아내는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갑시다.



김민지  
목사  
NCCCK인권센터

##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에는 하늘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고, 땅에 대한 보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에 대한 창조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문 65장 22절 상반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는 착취가 없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림은 그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를 누리던 이들의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오늘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모습은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 선언임과 동시에, 억압받고 소외당해 온 민초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은 65장 25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자와 아기염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세상은 동화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치유의 대로를 걷는 세상, 노조와 기업이 상생하는 세상,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권리와 존엄을 누리며 사는 세상, 자신의 세상에서 밀려난 소수자들이 어깨를 펴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속장식의 어지럽고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먹이사슬을 끊어내고 강자들의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약자

들이 해방되는 세상 바로 이것을 오늘 성서가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생명이 지닌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 존엄이 바로 서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세상의 구조와 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눈물 짓고, 탄식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일해 온 YWCA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 “서로 함께 살자, 생명을 택하자”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세상에 한복판에서 “여기 우는 사람이 있으니 함께 연대합시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밭을 딛고 사는 이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인권의 옹호자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모든 현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Y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선거법이 달라졌다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매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그렇다. 선거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14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53만 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에게 의회 권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규칙이 달라졌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들(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18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낼 수 있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당직을 가질 수도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완전한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기준 19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6%, 67만7326명이었으며, 2020년 현재 만18세 새내기 유권자는 53만4,786명으로 전체 선거인 중 1.1%, 2020년 2월 고교를 졸업한 만 18세 신입생이 28만 9,678명, 고3 재학생은 9만 2,000여 명으로 보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달라진 선거법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지만 '고등학생 투표'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게다가 만 19세의 투표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10대는 투표를 안 한다"는 속설이 깨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33.2%, 19대 47.2%, 20대 53.6%이며,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는 77.7%로 1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는 다양한 선거 국면에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해 온 YWCA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다.

우리는 2017년 4월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 후보에게 청년 일자리 확대와 함께 '18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평균연령 55.5세의 국회는 20~30대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한 정책을 대변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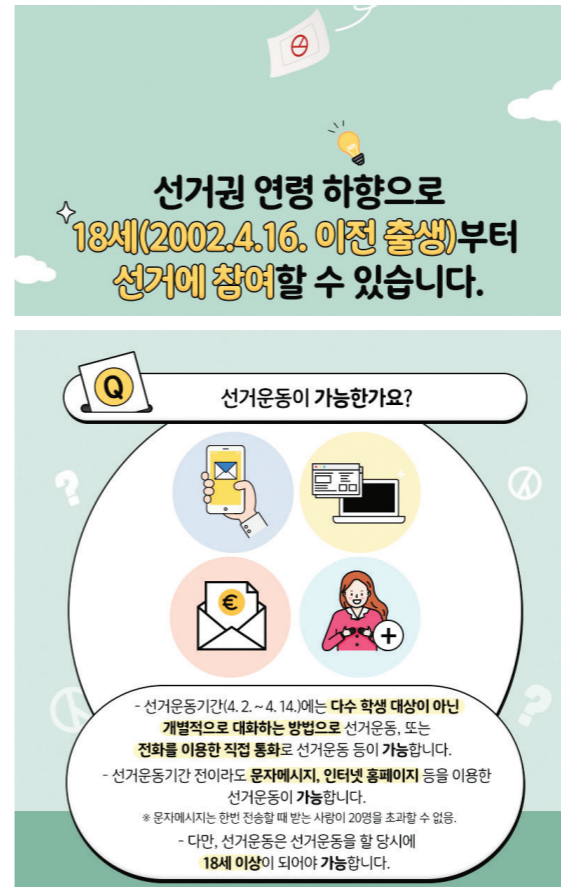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뀐다

두 번째 변화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다. 새로운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전체 의석수는 지역 253석, 비례 47석으로 총 300석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은 1인 2표제 독립적인 선출방식에서 연동하는 방식(준연동방식)으로 달라진다. 47석 중 30석은 연동율 50% 방식으로 정하고, 17석은 개정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의 의의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에 있다.

그러나 새로운 비례대표제가 여성참여에 어떤 결과를 가

1) 출처: 동아닷컴 "10대 유권자를 잡아라"... 만 18세 투표권, 총선 새 변수로 (2020.1.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개정은 이른바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으로 줄이고, 의석은 2배로 늘려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로의 개혁 요구와는 사뭇 다르며, 무엇보다 지역구 여성의무 공천 30% 법제화 논의가 여성계로부터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모든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현실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하리라는 그 어떤 기대도 가능하지 않다. 2017년 헌법 개정 당시 범여성계가 요구했던 남녀동수개헌은 과대대표된 남성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정치의 최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선거는 권력 주체를 바꾼다

2017년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WCA는 52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원YWCA의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청년대표 5천 여 명이 연명한 YWCA정책과 탈핵, 성평등, 청년 분야 6개의 핵심공약의 실행을 촉구하는 총 600쪽에 달하는 정책요구서를 제출했다.

2년이 지나 2019년 9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응TF팀이 구성되고 YWCA정책 요구서에 무엇을 담을지 다시 머리를 맞대었다. 반복되는 정책이슈들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YWCA가 펼치고 있는 운동 과제들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기에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에 주목했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유권자 자가 평가도 준비했다.

YWCA는 2020~2021년까지 53개 회원YWCA와 연합회가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과 자립 지역사회',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 '평화교육과 민간교류 확대로 평화체제가 구축된 사회',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운동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2년의 계획이 증명하듯 100년의 역사 동안 한국YWCA가 해온 일은 의회 내 정치적 이슈와 분리될 수 없다. 선거는 권력의 주체를 바꾸고 이슈를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모두가 YWCA운동가로, 유권자로, 여성시민으로 YWCA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한다.

**| 탈핵 |**

##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 사회

-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폭염, 혹한,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며 그 강도가 커지는 등 닥쳐올 기후재앙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다.
- 한국은 2020년 1월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 밀집 국가이다. 또한 2019년 기준 25년 이상 가동된 핵발전소가 9기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 문제는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며, 이를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원자력계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 핵발전소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핵폐기물이라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0만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에너지다.
-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탈핵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실행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2019년 4월 일본의 WTO 제소에서 한국이 승소함으로써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홍수 시 관리 미흡으로 2,000여 톤의 방사능 폐기물들이 방류되었고 차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톤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탈핵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실행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제안  
과제**

### 1.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수립

-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제도화 마련 및 확대

### 2. 핵발전소 안전 강화 정책 수립

-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 부실 공사 원전 재가동 금지와 폐쇄 : 한빛 1. 3. 4.호기 등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정책 수립

###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체계 구축

**| 성평등 |**

##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 2019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의 39.8%가 젠더이슈였다. '여성폭력·안전' 주제가 63%로 가장 많았고, 청원의 목적은 '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성매매, 성폭행, 성범죄, 몰카(불법촬영), 무고죄 등이 주요 키워드였고, 이어 어린이집, 교사, 야기, 보육 등 '돌봄과 일·생활균형'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 정책과 입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변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국민들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제는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좌시하지 말고, 법제도와 정책 마련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다.
- 한국YWCA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일자리, 정치, 젠더폭력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성평등을 통해 완성된다. 제21대 국회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이유다.

**제안  
과제**

### 1.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

-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법제화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비준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 2. 성평등한 정치

- 남녀동수 헌법 개정 :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조항 신설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3. 젠더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

-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비롯한 여성대상 신종 폭력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처벌 강화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 인터넷 포털의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책임 및 처벌 강화
- 초·중고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평화·통일 |**

##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 이후 남북 관계는 막혀 있고, 북미 관계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위축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시민들의 바람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때에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여성들의 참여는 중요하다.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별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평화문화를 확산하고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 여성폭력과 인권 평화를 다룬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 25주년, 여성과 평화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2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제안  
과제**

### 1.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지원 확대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의무화
- 탈북민(제3국 출생 아동 등)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 지원

### 2.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참여 촉진

-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
- 평화구축 공적 기구에 여성 참여 확대
- 일본군 '위안부' 전사 성폭력 문제 해결

### 3. 대북협력사업 기틀 마련

-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 개성공단 및 금강산재개 등 경제교류 방안 마련
-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

### 4. 평화협정 체결

- 시민사회와 여성 참여 평화관리기구 조항의 평화 협정 체결

**| 청년 |**

## 청년의 생존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확대

- 청년(19~34세) 10명 중 8명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7.5명은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는 '탈조선' 응답을 택했다.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아서 벗어나고 싶다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이 살기에 힘겨운 곳이 되었으며, 청년들이 본인이 살아오던 곳인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코 개인적인 이유만이라고 할 수 없다. 현 시대의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삶의 목표나 방향보다도 당장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게 된다.
- 2019년도를 살았던 청년들 중 47.9%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고, 6.2%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당장 내일의 생존을 생각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미래는 그들의 관심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 이러한 때에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지만, 청년기본법의 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 청년지원정책을 보강하여 청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청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안  
과제**

### 1. 청년 공간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정책과 지원 시행 대통령 산하 '청년지원팀' 조직
-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충
- 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청년공간 설립 추진

### 2. 청년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및 확대

- 청년주거포털 정부 운영
- 청년주거보장법 제정

###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

-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내용 개선
- 청년일자리 종류 확대
- 청년 일자리 정책·관리 감독 기준 강화

## YWCA 유권자 선언!

한국YWCA 53개 회원YWCA 10만 회원들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는 YWCA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탈원전·에너지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 사회를 원합니다.

하나.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하나. 평화교육과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하나.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원합니다.

이에 YWCA 회원들은 유권자로서 국회의원 후보자와 각 당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반드시 투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생명의 바람으로 희망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

**YWCA 2020 총선 가이드라인**  
**좋은 후보자 구별법 8가지**

이런 총선,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까?

**눈앞에 부쩍 다가온 2020 총선!**  
**이번 선거 포인트** 왜 중요한가?

하나  
2024년까지 **일괄 국회의원**을 뽑는다  
2020년 5월 30일부터 수행, 총 300석

둘  
**총선거구** 이후 첫 총선  
국민 주권과 시민사회 역할이 부각된 계기!

셋  
선거권 연령 조정으로 **18세도** 투표가능

**그런데,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까?**

**YWCA가 알려주는 8가지 구별법을 통해 확인하자!**

**01**

모든 지역주민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하는가?

**02**

**혐오발언 절대 NO! 성폭력**

성폭행 및 사회 위험을 초래한 범죄를 일으킨 적 있는가?

**03**

성실한 납세는 기본!

체납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가?

**04**

선거는 공정하게!

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가?

**05**

**탈핵**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06**

**여성**

성평등에 대해 인지하고 그에 대한 의제를 마련했는가?

**07**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08**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4년! 이번 선거에 달려있습니다.**

YWCA가 어떻게 총선에 대응하는지 궁금하시다면 "YWCA 정책의제"를 통해 확인하세요!

# 우리 YWCA, 이것만은 남다르다!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원YWCA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사업과 활동을 보고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올해 총 22 명의 신입회장이 선출되었다. 회원YWCA 총회 현장을 사진을 통해 만나본다.

※ 연합회와 4개 회원YWCA(고양, 광명, 파주, 평택)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우려로 정기총회가 연기되었습니다.

## 북부지역

①강릉YWCA 회원증모 목표 달성자 시상 ②동해YWCA 감사패 수여 ③서울YWCA 당선이사 ④속초YWCA 이사 중창단의 특별찬양 ⑤원주YWCA 원주어린이집 원아들의 특송 ⑥인천YWCA 증경회장과 함께 창립 50주년을 기대하는 메시지 ⑦춘천YWCA 회원증모상 수상자 격려



## 중부지역

①논산YWCA 봉사상 수상자들 ②대전YWCA 장학금을 받은 차세대리더 ③세종YWCA 개회예배 ④제천YWCA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을 든 단체사진 ⑤천안YWCA 결의문 낭독 ⑥청주YWCA 주주찬양단 개회식 공연 ⑦충주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경기지역

①남양주YWCA 공로패 전달식 ②성남YWCA 총회 단체사진 ③수원YWCA 이사 특송 ④안산YWCA 회원이 준비한 다과 ⑤안양YWCA 회원 결의문 낭독 ⑥의정부YWCA 이사 선서 ⑦하남YWCA 단체 사진



## 동부지역

①거제YWCA 이사 및 공천위원 선서 ②김해YWCA 청소년 장학금 전달 ③대구YWCA 실무자 중창단의 찬양 ④마산YWCA 감사상 시상 ⑤부산YWCA 신입이사 인준 ⑥양산YWCA 동아리 회원 특송 ⑦울산YWCA 이사, 공천위원들의 선서문 낭독 ⑧진주YWCA 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공연 ⑨진해YWCA 합창단과 활동가들의 특별찬양 ⑩창원YWCA 사업계획 동의제정 ⑪통영YWCA 모범직원상 수상자들 ⑫포항YWCA 감사장 전달



## 서부지역

①광양YWCA 사업보고 ②광주YWCA 신입이사 공천위원 인준 및 서약식 ③군산YWCA 창립총회 ④남원YWCA 경품추첨 ⑤목포YWCA 이사, 공천위원들의 선서 ⑥서귀포YWCA 오카리나 특별연주 ⑦순천YWCA 단체사진 ⑧여수YWCA Y-틴과 대학Y 봉사상 수상자 ⑨제주YWCA 비빔밥 나눔 ⑩전주YWCA 결단식 ⑪익산YWCA 결의문 낭독



## 2020 회원YWCA 신입회장



### 거제YWCA 박광복

- 1994~95 거제Y 이사
- 2000~09 거제Y 감사
- 2016~17 거제Y 이사
- 2018~20 거제Y 부회장



### 광양YWCA 윤지영

- 2013 광양Y 회계이사
- 2014~15 광양Y 부회장
- 2016~17 광양Y 회계이사
- 2018~19 광양Y 부회장, 재정위원장



### 남양주YWCA 조숙경

- 2013~16 남양주Y 이사
- 2017~19 남양주Y 부회장



### 남원YWCA 유정이

- 2002~04 남원Y 이사
- 2004~08 남원Y 서기이사
- 2009~19 부회장



### 대구YWCA 최정선

- 2003~19 대구Y 위원 및 이사



### 대전YWCA 정혜원

- 2009 부회계
- 2012~15 제2부회장
- 2016~19 제1부회장



### 원주YWCA 조숙자

- 2013~17 원주Y 회계이사
- 2017~19 원주Y 부회장



### 익산YWCA 고희정

- 2013~19 익산Y 사회개발위원장, 청소년위원장, 재정/인사위원장, 1,2부회장
- 2016~19 익산Y합창단 단장



### 전주YWCA 이정선

- 2002~11 전주YWCA 본부 간사
- 2015 전주YWCA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 2016~17 전주YWCA 회계이사
- 2018~19 전주YWCA 제1부회장



### 제주YWCA 고미연

- 2005~08 제주YWCA 어린이집, 통합상담소 운영위원장
- 2009~13 제주YWCA 회계이사
- 2015~17 제주YWCA 부회장
- 2018 제주YWCA 회장



### 진해YWCA 이순옥

- 2003~11 진해Y 이사
- 2012~13 진해Y 부회장
- 2014.02~18.01 진해Y 회장
- 2015~2016 진해Y 경남Y 협의회 회장



### 천안YWCA 박경진

- 2000 천안YWCA 사회문제부 상임위원
- 2006~08 천안YWCA쉼터 원장
- 2013~19 천안YWCA 이사



### 마산YWCA 김명자

- 2001~19 마산Y 이사



### 서귀포YWCA 고맹수

- 2012~15 서귀포Y 이사
- 2016~19 서귀포Y 부회장



### 서천YWCA 나문숙

- 2019 서천Y 서기이사



### 세종YWCA 김광희

- 2011~15 세종Y 이사
- 2012~13 세종Y 제1회계
- 2012~13 세종Y 직업개발위원장
- 2012~14 세종Y 재정위원회 위원



### 여수YWCA 조애숙

- 2010~11 여수Y청소년위원장
- 2012~15 여수Y 이사
- 2016~19 여수Y 부회장



### 청주YWCA 김은희

- 1991~95 직업개발부 위원
- 1995~2019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 2002~현재 청주Y 이사
- 2018~19 청주Y 부회장



### 통영YWCA 임봉선

- 2004~07 통영YWCA 이사
- 2008~11 통영YWCA 서기이사
- 2014~16 통영YWCA 서기이사
- 2016~18 통영YWCA 제2부회장
- 2018~20 통영YWCA 제1부회장



### 포항YWCA 백성미

- 1985~2016 포항Y 회원
- 2017~18 포항Y 이사
- 2019 포항Y 제1부회장



### 하남YWCA 송순이

- 2019 하남YWCA 이사



### 군산YWCA 이미순

- 1983~88 군산Y 청소년,가사돌봄 외 간사
- 1997~2004 군산Y사무총장
- 2008~19 우리재가장기요양센터 센터장

## 5부지역위원장

### 경기지역위원회



고양YWCA  
윤정애

### 동부지역위원회



부산YWCA  
홍순옥

### 북부지역위원회



인천YWCA  
조철숙

### 서부지역위원회



여수YWCA  
조애숙

### 중부지역위원회



세종YWCA  
김광희



강양구  
과학 저널리스트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 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2020.2.11.)  
(출처: 광주=연합뉴스 정희성 기자)

### 새 바이러스 출현과 공격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COVID-19)'로 정식 명명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만 1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이 글을 쓰는 현재(2020년 2월 12일)로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인류에게 안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류가 운이 좋아서 이번 바이러스 공격을 막아 내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바이러스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숙주로 살아왔던 동물의 사정은 최악이다. 열대우림 파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가 계속해서 줄면서 동물의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포유동물 가운데 소, 돼지 같은 가축과 인간을 제외한 야생 동물의 비중은 4퍼센트뿐이다. 닭, 오리 같은 조류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 기후 변화가 가속시킨다

얼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는 이런 상황을 더욱더 가속한다. 오랫동안 추운 지구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지금의 동물은 산업화 이전의 약 14도와 비교했을 때 1도(현재), 2도, 3도씩 상승하는 더워진 지구 기후를 견뎌내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오랫동안 동물에 의탁해온 바이러스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숙주 없이 생존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게 동물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간, 또 그에 딸린 소, 돼지, 닭 등은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다. 개체 수가 많고, 또 한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일단 자리만 잡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최초 발생 시점 기준으로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2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2019년 코로나 19는 모두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병원체다. 박쥐, 돼지, 낙타 등에서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숙

주를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긴 것이다.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숙주(인간)를 노릴 것이다.

둘째, 새로운 숙주(인간)를 침입하려는 바이러스의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번번이 절반의 성공이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의 돌연변이 끝에 운이 좋게 인간에게 감염이 되더라도 그 파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작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가는 작은 마을 주민 몇 사람을 희생시키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배, 기차, 비행기 등으로 세계가 갈수록 압축되면서 바이러스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정말 운만 좋다면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처럼 비행을 수없이 환승하면서 지구를 불과 6주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자신을 비행기에 태워줄 수 있는 적절한 숙주와 연결만 된다면, 그 변종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대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2015년 중동을 벗어나지 못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비행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해서 몸부림을 친 것도 비슷한 사정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중국 우한에 자리를 잡고 나서,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 인간의 욕망과 바이러스

셋째, 이 대목에서 21세기 들어서 인간과 동물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또 다른 이유를 말해야겠다. 사스가 유래한 광둥성은 특이한 야생동물 요리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야생동물 요리는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시장 경제가 팽창하고 돈이 돌면서 나타난 '과시적 소비 성향'의 결과다.

평소 먹던 요리와 다른 것을 먹어보려는 돈 있는 사람의 수요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사육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산업을 팽창시켰다. 과거에는 열대우림의 동굴이나 늪지에서 서식하던 야생동물이 도시 외곽에서 사육되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에서 우리에게 갇힌 채 몸부림치는 신

세가 된 것이다.

물론 그런 신세로 전락한 야생동물 안에는 신세계(새로운 숙주)를 눈앞에 둔 수많은 바이러스가 따리를 들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돈을 주고 '야생의 맛'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우한의 약자지꼴한 시장에서 바이러스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고기에 탐닉하는 인간이 식생활도 문제다.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되는 소, 돼지, 닭, 오리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만큼이나 좋은 숙주다.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돼지, 닭, 오리 등으로 일단 터전을 옮기고 나서, 호시탐탐 인간에게 전파할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많은 과학자가 조류 인플루엔자(조류 독감) 바이러스 변이를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고한 날은 2019년 12월 31일. 공교롭게도 그 날 나는 『과학의 품격』(사이언스북스)을 펴냈다. 과학 기술과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핀 이 책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이었다. 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었다.

“만에 하나 신종 플루의 감염력과 (독한) 살상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나서 세계를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마지막 해인 1918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이 그랬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의 약 5퍼센트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과 2018년의 메르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 우리를 덮칠까? 지금까지 인류는 운이 좋았다. 하지만 항상 운이 좋기는 어렵다.”

인류는 정말로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 바이러스 공격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

# 2020년, YWCA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사회를 향하여

## - 왜 이집트 탈출에 40년이 필요했을까?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위원

### 이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아닥친 기근으로 기후난민이 되어 버린 야곱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축복의 약속을 맺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 기후 위기를 대비했던 이집트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노예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탈출 여정에 나섰다. 그런데 한 걸음을 내딛자 이집트의 군대가 출동한다. 전차와 창검으로 무장한 정예 부대다. 꿈쩍 없이 몰살당하거나 다시 이집트로 끌려와 노예가 되어야 할 판이다.

1977년부터 가동되었던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부산 고리핵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수십 년 간의 탈핵 주민운동과 후쿠시마 핵사고로 힘을 모은 탈핵 시민운동의 작은 결실이었습니다. 이른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렇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었던 신고리 5,6호기가 다시 건설로 돌아섰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친핵 진영은 시도, 때도, 맥락도 없는 ‘탈원전 정책 탓하기’에 나섰습니다. 언론, 학계, 업계, 정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탈핵 정책을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유력 야당은 ‘탈원전 정책 되돌리기’를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배제한 채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내의 과학정보통신부 차관이 나서서 ‘스마트 원자로’라는 이름의 소형핵발전소의 상용화와 수출 의지를 밝히면서 10년 전에 대국민사기극으로 판명된 ‘원자력 르네상스’를 또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 어디로 갈 것인가

구사일생으로 이집트 탈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거친 광야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에 겨웠다. 정말 약속의 땅이 있거나 한 것인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심이 되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도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몇몇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다. 감히 넘보지 못할 땅이라는 다수의 이야기에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소수의 이야기는 묻혀버렸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탈핵은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전환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핵발전으로 이루어낸 경제 성장과 풍요로운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여기에 일부 언론은 탈핵에 나선 독일에서는 전력난이 발생한다더라, 탈핵으로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더라 하는 가짜뉴스로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시설이 환경을 파괴한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

발전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천연덕스레 내뱉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핵발전을 끝내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OECD 국가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10.5%로 꼴찌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탈핵, 2038년까지는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독일은 이미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45%를 넘어섰습니다. 문제투성이 핵발전소의 퇴출로 에너지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에너지전환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에 질세라 에너지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방향할망정 다시 핵문명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야합니다.

### 어떻게 갈 것인가

비굴한 노예로 살았었지만 배고픔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주인의 고기 가마 옆에서 주인이 남겨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했다. 하지만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 그 날 그 날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히 먹으면 될 뿐이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굶주릴 필요도 없었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 끝없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대신 하늘에서 주시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은 가까워졌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이 익숙해졌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답이 분명한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원만을 핵이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에너지전환은 아닐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이 지구 생태계 모두에게, 또한 미래세대에게 정의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월성, 고리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공감하신다면, 송전탑 아래에서 쇠사슬에 몸을 묶으셨던 밀



<2019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에서 YWCA 회원들은 ‘탈핵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앞당길 것’을 다짐했다.

양 할머니들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면,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라는 분노의 목소리에 부끄러우셨다면, 이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힘없는 이들의 것을 푼돈을 주고 빼앗거나 미래세대의 것을 말없이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음식과 물, 옷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서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립사회’는 YWCA 목적문에 있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성, 중, 세대에서 일방적인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정의롭고 (Justice), 평화로우며 (Peace), 창조세계의 온전함 (Integrity of Creations)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국 YWCA가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모두에게 당당히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가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전환의 첫 걸음은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 2020년,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로

지난 2년 간 한반도는 희망과 절망의 계곡을 수차례 넘나들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약속, 그리고 북미정상의 희망적인 만남도 있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화되면서 한반도는 갈등과 혼란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종전과 평화협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2020년, 한반도와 주변을 둘러싼 변화들을 짚어보며 올해 한반도 지형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 북한 전원회의

북한은 연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로 신년사를 갈음하였다. 지난 몇 개월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을 보냈으나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 하자는 제재 극복과 경제 총력전이 표명되었다. 또한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가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약속한 핵실험 및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증지를 부인하지 않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결정서에 남북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한국 패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북미간 협상의 난항 중에 지난 해 남측 역할에 실망감을 표현한 것에 비하면,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지키려는 의지를 비추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문제를 논의했으면서도 결정서에 담지 않음으로써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했다고 보인다.

최근 남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중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식량 지원조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호혜적 관계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신한반도 경제가 북한의 자력 갱생 논의와 더불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한미 관계의 쟁점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는 한미간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국측이 기존 한미가 합의해온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금액(1조389억원, 10억 달러)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약6조원, 50억 달러)을 요구하였다. 50억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0%에 달한다. 현행상 주요 항목은 주한미군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사지원비인데, 미국이 요구한 신설 항목에는 주한미군 수당인건비와 군무원·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등이 추가되어 있다. 12월 미국측 협상 대표 드하트는, 한반도 바깥에서 발생한다 해도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담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1월 말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협정 타결이 안 될 경우 올 4월부터 한국인 직원 9천명을 강제 무급 휴직 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다른 쟁점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한미양국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반환에 이어 전작권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은, 한국군 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초기대응능력, 한반도 주변지역 안보환경관리능력이다. 2022년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2019년부터 기본운영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의 단계별 검증을 진행해왔다.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주권의 문제

로 보고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발생할 것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독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트럼프 리스크’는 한미 관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위기에 놓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균형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한미 방위비 증액은, 3월 예정인 미일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강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국내 여론을 방패삼아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롯한 한미 관계 현안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요구된다.

#### 1965년 체제와 한일관계

지난 해 한일관계는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경제적 협력과 안보상의 연계를 보증하는 근거로서 기능해왔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 압박 수단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에서 견지해온 정경분리 외교원칙은 무너졌다.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대응했고, 미국은 한일관계의 배후로부터 중재자로 나섰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에 응했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데 그쳤다.

지난 11월 초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일본 방문에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발표하였는데, 양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국의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는 강제집행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한국YWCA를 비롯한 여성시민단체들은 각기 성명서를 통해 문희상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청산문제와 더불어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불법 방사능 오염수 배출 등의 문제로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8월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선수들의 건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CrossDMZ)의 국제평화여성단이 북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4일, 우리정부가 승인한 개성통로를 이용하여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남한 참가자들과 함께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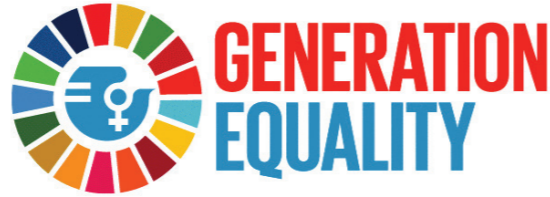
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참여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의 평화의 정신을 도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1965년 체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힘과 연대가 필요하다.

#### 2020년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로

현재의 국제정세는 한 국가가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각자 국익에 따라 변화하는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Ian Bremer)는 G7, G20, G2도 아닌 G0(Gzero)시대에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와 상호 이익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중심축 국가가 되어야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국 스스로의 비전과 주도적 역량 강화, 한미동맹과 중일의 협력을 위한 외교역량, 국내 평화통일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그리고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를 강조하는 UNSCR1325 결의안 20주년과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 등을 맞는 해이다. 한국YWCA는 남북국제여성들과 DMZ여성평화걷기(5월),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설악산편(9월), 평화협정캠페인(연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평화의 상상력과 연대의 행동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와 지형이 새롭게 변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원년의 해로 기념되기를 소망한다.

# 북경선언 25주년, 여성운동 회고와 전망



세대 평등 : 평등한 미래를 위한 여성의 권리 실현  
(Generation Equality: Realizing women's rights for an equal future)

베이징선언 및 행동계획(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25주년을 맞아,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세대 평등 운동은 동등한 임금,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 공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성희롱 및 폭력 종식,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동등한 정치 참여 등을 요구한다.

(출처: UN WOMEN)

## 마정윤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연합회 성평등위원

### 북경선언과 '성주류화'의 도입

2020년은 여성운동과 국제연대의 흐름이 다양한 이슈로 접점이 생겨나는 해다. 무엇보다 북경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북경선언 이후 발전해온 젠더 이슈가 종합되어 국제적 확산의 지렛대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SDGs) 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엔안보리의 1325 결의안 채택과 일본군 '위안부' 도쿄법정이 나란히 2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이 중 북경선언은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을 줄인 것으로,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국제사회 결의안을 일컫는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점을 천명한 선언과 더불어 빈곤, 교육 및 훈련, 보건,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제도,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의 12개 주제 분야에 대한 전략 목표가 도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남녀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시금석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CEDAW)<sup>1)</sup>인데, 북경선언은 이 협약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CEDAW와 더불어 구체적인 행

동강령이 마련되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이행의 책무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CEDAW의 비준이 여성관련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은 이른바 '성주류화'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북경선언 이전의 여성정책이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이었다면, 북경선언 이후로는 한 사회의 정책이 양성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북경선언이 이루어졌던 1995년에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성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등이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마련은 관련 전문가의 양성으로도 이어져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의 변화를 추동해나왔다. 또한 북경행동강령 수립 이후 정기적인 국가주도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점검되고 있다. 여성운동계 또한 1990년대 이후 성평등, 성주류화와 관련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오고 있다. 특히 성인지예산활동은 지역여성운동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활동의 장이 되어 오고 있다.

### 성주류화, 개념의 모호성

하지만 북경선언의 핵심인 성주류화는 그 시작부터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기도 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적 수준에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각 국 현장에서의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흐름 우려가 존재했다. 성주류화 10년 후 한 학자는 "성주류화 정책은 가장 국제적이고, 글로벌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정책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로컬에서의 위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말로 하면 성주류화의 '조선패치'란 어떠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경선언 이후 도입된 여성정책의 방향과 이를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운동들의 활동들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켜왔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명확하게 변화시킨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일단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성인지 젠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각 행위주체들의 이해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 이로 인해 개념 정의부터 혼란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제는 급기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로 까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지적하듯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의 처지에서 시작하는 개념의 정의로 인한 혼란과 논란은 넘어서야 하는 지점이다. 특히 성주류화는 방향이며 이를 추진할 도구를 우리가 가진 것이지, 그 과정에서 시행주체는 누구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특정 사안과 시기, 위치에 따른 맥락에서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 성주류화는 방향이다

즉 성주류화는 정책의 방향이지 내용이 아니므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부단한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하고 바로 이 움직임이 우리 여성운동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성주류화를 젠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정책 영역 외부에 밀려나 있던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 안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없다면 성주류화의 추진은 효율성, 도구적 합리성에 치중되어 숫자와의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며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운동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하청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현실을 보면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들도 들려온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또한 우리 여성운동의 지난 활동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로서의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못살겠다고 외치게 된 것도 여성운동의 성과이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주체의 길을 낸 것도 여성운동이기 때문이다.

### 지금 여성운동이 당면한 과제

결국 국제사회의 성평등 담론과 공명하며 만들어 낸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이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즉 지난 20여 년 동안 쌓인 여성운동의 경험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폭발한 소리들을 조율할 역량이 있는가가 여성운동이 당면한 과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되 상처받고/주지 말고, 혹은 상처받고/주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현실을 직면해내는 용기일지 모른다. 그 직면을 통해 북경선언이 던져준 화두인 성주류화를 내용적으로 채우는 로컬의 위급성을 잡아내는 영리한 운동이 요구되는 때다. 

1) 1981년 발효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의 인권보장과 차별해소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 여성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국제인권협약으로, 186개국이 비준 가입했다. 한국은 1984년 12월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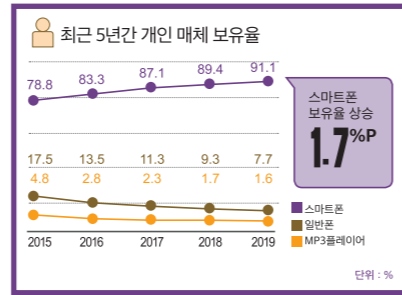
# 미디어의 두 얼굴 그리고 올바른 활용 방안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 숲 속의 사람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급속하게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생겨나는 동시에 기존 미디어 또한 여전히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적어도 미디어 환경에 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시공을 초월한 융합과 통섭의 새로운 각축장이 전개되고 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각종 신기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의한 신종 미디어는 인터넷, 디지털, 모바일 등으로 이어지면서 숨가쁘게 새로운 매체 환경의 바탕이 되고 있다. 메시지나 정보를 실어나르는 속도를 비롯해서 가동되는 콘텐츠의 종류와 형식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행태 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 숲 속에 빠진 현대인들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매우 복잡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TV화면을 통해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고전적 시청자들과 아직도 새벽에 조간신문을 기다리는 충성도 높은 신문 독자들이 있다. 반면, 아예 종이신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정보와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 즉,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갈수록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가 보다 정확하게 이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



가구:전국 3,945가구 대상 조사 개인: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6,375명 대상 조사  
2019년 '개인화' 매체인 스마트폰 보유율 90% 돌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소통의 도구인 미디어의 변질과 타락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원활한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창조된 도구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발전 역사는 곧 인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와 수단의 발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미디어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적절히 사용될 때만이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제공, 여론형성, 환경감시, 사회화, 사회통합, 오락제공 등 다양한 미디어의 기능들도 결국은 인간과 사회의 소통, 관계, 네트워크 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져서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며 나아가서는 파괴까지 하는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질서에 있다. 소통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해야 할 각종 미디어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왜곡과 불통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특정 사회나 국가가 다양한 의견과 주장으로 혼란스러울 때 정확한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을 통해 건강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 많은 언론들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시급한 미디어 대책은 결국 왜곡된 커뮤니케

이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진영논리에 갇혀 상대 진영에 대해 무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품격 잃은 언어들도 그대로 실어나르는 앵무새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 미디어의 두 얼굴과 올바른 활용교육의 필요성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기술적 도구가 그러하듯이 미디어는 항상 양면성을 지닌다. 미디어는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좌절과 절망이란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때론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용기를 되찾게 하는 활력소가 될 때도 있지만 의욕을 꺾는 파괴자로서의 칼날을 휘두르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그것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명의 이기로 쓰일 수도 있고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의 각종 역기능적 폐해 중 특히 오늘날 미디어가 강조하고 유포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선정성과 폭력성을 비롯해서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일등지상주의, 편이주의, 찰라주의, 한탕주의 등 현대 자본주의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언어폭력, 진영 및 지역-계층-연령 간 갈등 유발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의식을 토대로 스스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주체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주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식 배양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인 셈이다.

## YWCA가 할 수 있는 일들

YWCA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운동을 수행해 왔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타락하고 변질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감시운동인 언론모니터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바 있다. 아울러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제정하여 지난해로 23회째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각종 미디어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YWCA의 새로운 미디어교육, 미디어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YWCA가 시도할 수 있는 미디어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영화, 대중음악, 공연, 출판잡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다양한 메시지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용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각종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절제'와 '선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

둘째는 YWCA가 그동안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는 언론 감시운동을 새롭게 시도하는 일이다. 언론이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및 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지역별, 직능별, 주제별 언론모니터팀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YWCA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 올바른 매체 활용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양한 매체 또는 플랫폼을 통해 YWCA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건강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실천하는 일이다. 특히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각종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에서 비건으로 살아남기

대학·청년Y

비건(vegan).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철저하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일컫는다. 학교 급식, 군대, 병원, 잦은 회식 등 공동생활이 많고 행사에서도 비건 옵션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비건으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기를 사랑하는 한국사회에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비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채식주의의 종류

- 비건(Vegan)**  
 동물과 동물성 식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모두 섭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락토 베지테리안(Lacto vegetarian)**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지만 유제품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 오보 베지테리안(Ovo vegetarian)**  
 비건과 동일하지만 동물의 알은 먹을 수 있다.
- 락토 오보 베지테리안(Lacto-ovo vegetarian)**  
 가장 많은 채식주의자의 종류로 유제품과 동물의 알,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들을 뜻한다.
- 페스코 베지테리안(Pesco-vegetarian)**  
 유제품, 동물의 알, 생선과 해산물을 섭취한다.
- 폴로 베지테리안(Pollo-vegetarian)**  
 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먹고 가금류(닭이나 오리고기 등)까지 먹는 채식주의자.
-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도 불리는 플렉시테리안은 평소에는 비건으로 생활하고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자기의 육식 허용범위를 정하는 채식주의자다.

**왜 채식을 하냐고?** 왜 채식을 하냐고? 묻는다면 고기가 몸에 맞지 않아서, 환경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동물이 불쌍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채식을 실천하는 이유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 채식주의는 동물, 자연, 환경, 인권까지 연결되는 일이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동물로 만든 의류, 화장품 등 모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것이 비건이다.

**연결감이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연결감을 느낀다. 어린이들에게는 동물도 사람도 다 소중한 친구다. 그러나 살면서 나의 이해관계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삶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나와 가까이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끼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보자.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과 가까이 생활하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다. 때문에 개고기, 고양이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닭, 돼지, 소는 똑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소비된다. 우리는 다시금

연결감을 되찾아야 한다. 동물과 자연에 대한 윤리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는 약자, 타자를 위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채식을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이 모든 것이 '공장식 사육'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닭과 돼지, 소를 키우는 소규모 동물복지 농장 사회였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지원하면서 소규모 축산은 사라지고 밀집 사육만 살아남게 됐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항생제, 감시제, 호르몬제 등 각종 약들을 투여했다. 이러한 동물들을 인간들이 섭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됐다. 공장식 사육은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완벽한 비건 한명보다 더 많은 채식주의자가 필요하다.**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보면 완벽성보다 확대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인권, 환경, 동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비건 한명보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채식주의를 조금씩 실천하는 여러 명이 소중하다. 모두에게 당장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월드컵 시즌만 되면 치킨 집에 불이 나는 문화, 먹방 영상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채식주의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증한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축산물과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도 좋다. 결국, 우리가 먹는 동물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연결되어 있는 지구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육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우리 나름 채식을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

## 비건추천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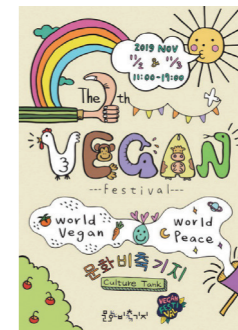


**남미플랜트랩**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55



**산본 몽가타**  
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12

## 비건추천 페스티벌



비건 페스티벌

## 비건추천 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

## 비건추천 도서



아무튼, 비건  
김한민



사랑할까, 먹을까  
황윤



2020년 Y-틴 전국협의회 총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오은지**

2020 Y-틴 전국협의회 회장 · 수원YWCA

2020년 Y-틴 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8일(수)부터 9일(목)까지 23개 회원YWCA Y-틴 회원 92명, 회원YWCA를 비롯한 연합회 실무활동가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2020년 1월 8일 전국의 Y-틴 회원 120명이 YWCA 버들캠프장으로 모였다. 전국 각지의 회원들을 처음 만나는 만큼 낯설어 걱정이 앞섰지만 이예림(안양YWCA)회원이 진행한 레크레이션 덕분에 점차 친숙한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로 친해진 후에 2020년 Y-틴 중점운동을 정하기 위한 운동주제 부스탐방이 시작되었다. 특별로 '청소년 진로', '평화통일', '성평등',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부스 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 진로' 부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나의 꿈에 대해 작성해보고 그 꿈을 가로막는 제도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평화통일' 부스에서는 남북분단 문제를 알고 통일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를 작성하고 북한의 언어 알아보기 시간도 가졌다. '성평등' 부스에서는 Y-틴 회원들의 성차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본군 '위안부' 부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틴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발표했다.

총 네 개 주제의 부스 참여 후,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2020년 Y-틴 운동주제 논의시간을 가졌다. 위의 네 가지 중점운동 주제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 관련 단어, 문제점과 실천방안 등을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조원들과 논의하고 다른 조원들의 생각들도 알아보았다.

우리조는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평등이란 큰 주제 안에서 다양한 작은 주제들이 나왔다. 가정, 학교, 일상, 사이버에 걸친 다양한 경험이 나왔고 각 경험을 개인의 차원과 다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천 가능한 활동에 스티커를 붙였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평등 이슈는 남녀 교복 착용감에 대한 이야기, 체육시간 내 남녀 활동 차이, 여자화장실 개수 부족, 교과서 내 고정된 성역할 표현 방식, 고리타분한 성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관련된 이슈 공부를 한다는 것, 학교나 교육기관에



2020년 Y-틴 중앙임원회

제안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조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Y-틴 전국협의회는 전국 Y-틴 임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YWCA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김은경 선생님의 리더십 특강이 있었다. '진정한 리더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사람들을 강압적이고 무작정 휘어잡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세워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정의가 크게 와 닿았고 리더십에 대해 새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Y-틴 회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인 Y-틴들의 축제 'Y-틴 별이 빛나는 밤'이 열렸다. Y-틴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멋진 랩을 하는 등 다양한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이었다. 재미있는 게임도 하는, 말 그대로 즐겁고 빛나는 밤을 보냈다.

다음날 Y-틴 전국협의회 총회를 열고 2020년 중점운동을 결정했다. 2020년 Y-틴 중점운동은 '할매, Y-틴과 꽃길만 걸 어유'를 슬로건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활동이 중점운동으로 정해졌다. 청소년 진로, 성평등, 평화통일도 제안되었으나, 역사와 여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3년 전 운동주제로 활동했던 일본군 '위안부' 활동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계속 이어져 하고 싶은 생각들이었 것 같았다.

이어 지역협의회를 열고 전국 중앙임원과 지역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Y-틴 회원들의 투표로 전국협의회 회장은 오은지(수원YWCA), 총무는 우지윤(청주YWCA)이 뽑혔다.


내가 전국협의회 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바르르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세 차례의 투표를 걸쳐 전국협의회 회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중점운동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장으로 뽑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정말 뽀핍 줄 몰랐다. Y-틴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 중앙임원들이 곁에 있기에 어떠한 일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1박 2일 동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올해 Y-틴 중점운동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Y-틴 회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 우리들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원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청소년들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청소년이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역사 의식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 일본군 '위안부'는 과거 이야기 아니라 현재 이야기라는 것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감명 받았다.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번 중점운동을 통해 Y-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 전국협의회장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지닐 것이고 많은 분들께 배우고 중점운동에 항상 귀 기울이며 YWCA 활동을 할 것이다. 

**2020년도 Y-틴 전국협의회 임원**

- 전국협의회 회장 오은지(수원YWCA) · 총무 우지윤(청주YWCA)
- 북부지역 회장 이수민(수원YWCA) · 총무 심민경(서울YWCA)
- 동부지역 회장 함선경(울산YWCA) · 총무 마지현(부산YWCA)
- 서부지역 회장 김승하(순천YWCA) · 총무 박은빈(여수YWCA)
- 중부지역 회장 허가연(대전YWCA) · 총무 김아령(세종YWCA)



제19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참가자들이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은희

한국YWCA대학·청년Y 기획팀장

2018년부터 YWCA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해 배우며 알게 되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인권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생각과 의견을 교류하는 전주YWCA의 '여·세(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서포터즈단'에 참여했다. 이 활동에서 여성참정권을 위해 싸운 여성운동가의 삶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 Suffragette'(2015)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을 이어가던 중, 올해 한·일YWCA청소년협의회가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을 주제로 개최한다는 소식이 내 고민을 한·일 청소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 19차를 맞이한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는 '여성혐오와 한·일 #미투운동-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향하여'란 주제로 한국에서 열렸다. 한국과 일본 청년대표 30여 명이 모여 성평등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여성혐오와 한·일 #미투운동' 주제발표(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장)가 진행됐다. 성평등과 인권적 관점과 원칙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 확산,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는 하이라이트이자,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에 대한 양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국가별보고가 이어졌다. 한국은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사건(2016.5.17) 이후 여성혐오에 분노하며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와 '위드유(#Withyou)'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해화역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열기도 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무엇이 잘못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혐오에 대해 심각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TV프로그램에 남자 아이가 여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 개그 소재로 쓰인다. 이런 TV프로그램은 여성이 개그소

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꾸며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여성 주체성을 부정하며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내 여성혐오가 내면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강남역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해화역 규탄 시위, 미투와 위드유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정확한 수사를 위해 '플라워 데모'를 한다. 그리고 배우 겸 작가인 이시카와 유미가 직장 내 '하이힐 착용 강요'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구투(ku too)' 서명운동이 촉발됐다. '구투'는 신발을 뜻하는 일본어 구쓰와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결합해 만든 조어다. 여성혐오에 대해 분명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다. 한·일YWCA청년협의회는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였다.

둘째 날 현장탐방으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왔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할머니들이 모은 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어진 곳이라 더욱 뜻 깊은 곳이라 생각한다.

**| 제19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

**'여성혐오와 한·일 #미투운동-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향하여'**

제19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가 1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연합회와 서울안호호텔에서 열렸다. 양국의 성평등 사회와 미투 운동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YWCA 청년대표 15명, 일본 청년대표 18명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제발표(여성혐오와 한·일 #미투운동), ▲국가별보고, ▲한·일YWCA협의회 운영위원회, ▲현장탐방(성평등도서관 '여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워크숍 I, II, III(한·일YWCA액션플랜 만들기/CSW64 한·일YWCA 워크숍 기획/제20차 협의회 주제 정하기) 등을 진행했다.



송소연 참가자(청주Y)가 워크숍3 주제 토론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일본 고등학교 교사가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한국으로 수학여행으로 왔을 때 이곳 박물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한 일본고등학생이 '어쨌든 보상해주었는데 왜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양국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사례였다. '위안부'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보상을 뛰어넘은 진심어린 사과였으며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요구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 일본 참가자가 '위안부'할머니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면 '위안부'할머니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 했다. 한국도 베트남전쟁 때 가해자 입장이었다. 한국도 베트남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과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일본인 참가자처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일본 참가자의 성숙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에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셋째 날,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에 대한 액션플랜 워크숍을 통해 양국과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제19차까지 한·일YWCA청소년협의회가 열리기까지, 양국 YWCA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가부장제 시스템이 공고한 사회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성평등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많은 이들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연대한다.

## 국가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김예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서울YWCA 회원

‘한국과 일본의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을 주제로 국가별 보고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과 해화역 시위, 한국 최초의 미투인 김복동 할머니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YWCA가 펼치고 있는 성평등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 측은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치한 포르노, 성인 잡지 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미투운동과 일본YWCA가 실시하는 성평등운동 및 청년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모리 마키 일본YWCA 청년이 ‘일본의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을 주제로 국가 보고를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를 들으며 신기했던 것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점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의 양태가 아주 비슷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광고에 ‘남성의 마음에 들려면, 남성이 싫어하는 것은’ 등의 남성중심적 문구가 사용되었으며 치한, 불법촬영, 강간 등의 범죄를 소재로 한 음란영상물이 많았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날날이 드러난 ‘권력형 성범죄’가 일본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통한 잘못된 성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점까지도 닮아 있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하는 범죄 역시 만연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성인물 등의 콘텐츠에 대한 연령과 시간 규제가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연령도 시간도 제한이 없었다. 일본에서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저녁 7-8시에 예능에서 여성들이 비키니만 입은 채 바닥에 눕는 등의 선정적인 장면들이 방송 전파를 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성상폭화 하는 잡지 등이 편의점과 같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미투운동이 SNS와 언론 등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일본 참가자는 “일본에서는 여성이 참는 것이 배려이며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에 대해 말하

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 했다.

전쟁과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과거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혐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성상품화 되는 여성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성별전쟁은 물론이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백래시가 만연하다. 여전히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산다.

성차별이 만연한 지금, 한일YWCA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양국 간의 ‘연대’다.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각 분야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플라워 데모’(친부가 딸을 강간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계기로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미투운동)와 같은 위드유 운동이 시작된 것도 모두 많은 여성이 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이 닮아있는 한국과 일본의 연대는 성평등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일Y협의회를 지속함은 물론이고 매년 액션플랜을 통해 각자의 나라에서 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여성혐오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끊임 없이 저항하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 3월에 개최될 제64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한일YWCA 합동 Parallel Event가 바로 그 장이 된다. 앞으로 아시아 여성들이 어떻게 페미니즘의 역사를 써 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 역사에 한·일YWCA가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영화 <미안해요, 리키>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얼어맞아 한쪽 눈마저 보이지 않는 통통 부은 얼굴로 영화의 주인공 리키는 트럭을 몰고 떠난다. “나 일하러 가야 해.” 필사적으로 말리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그는 차오르는 눈물을 계속 흘리며 다시 그 냉혹한 일자리로 달려간다.

영화는 그렇게 끝난다. 리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가족들도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장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관객들의 기대는 가차 없이 무너진다. 그래서 리키가 겪는 절망과 고통에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펄펄 쏟던 관객들은 그대로 멍멍해진 가슴을 안고 집으로 가야만 한다. 영화는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기며 우리에게 질문은 한다. “이렇게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일하고 또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에서 과연 희망은 있는가.”라고.

영국의 사회파 감독 켄 로치가 만든 <미안해요, 리키>는 이처럼 관객들의 영화적 기대를 저버리고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리키 터너는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며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프랜차이즈 택배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고된 택배 노동을 하지만 ‘자영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택배회사 매니저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합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하지만 고용 계약도 맺지 않았다. 더구나 임금이 아니라 배송한 만큼 수수료를 받으므로 자영업자인 것이다. 게다가 배송트럭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보험도 자기가 들

어야 한다. 어쩌다 쉬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대체인력도 자기 돈 들여서 고용해야 한다. 그래도 부지런히 일하면 그만큼 건당 수수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리키는 커다란 기대를 안고 간병인으로 일하는 아내의 차까지 팔아 트럭을 마련하여 부지런히 하루를 뚝다.

하지만 그런 부푼 기대는 조금씩 허물어져가기 시작한다. 주 6일 동안 14시간 이상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페트병에 오줌을 누어야 할 정도로 일해도 기대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모범생이었던 아들 세브도 학교를 가지 않고 반항한다. 학교 가라는 리키에게 “대학 가면 빚 갚느라 알바하고, 주말마다 술에 취할 뿐이야”라며 일찌감치 자기 미래에 대해 절망하며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거라는 리키의 부푼 기대 때문에 차를 팔도록 허용했던 아내 에비 또한 요양보호사로 일하지만 노동시간으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건당 급여를 받는 이른바 ‘제로임금’제 노동자다. 노인만이 아니라 치매환자, 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면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어도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한다. 게다가 차 없이 걸어다니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라 노동은 더 고되고 힘들어졌다. 리키와 에비는 이런 상황에서도 벗어나는 아들의 마음을



영화 <미안해요, 리키>  
감독 켄 로치 / 2019.12.19 개봉 / 101분

바로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 자기책임 원칙과 녹아내리는 노동

리키의 택배일은 '자영업'이라는 환상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쉽 없이 노동하게 하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는 택배회사의 관리 규칙과 노동환경은 가차 없고 냉혹하다. 배송추적기계는 움직임이 없으면 경고음을 날리고, 택배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어김없이 물어줘야 한다. 일을 못할 상황이 생기면 대리 인력을 쓰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택배회사는 노동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 한다.

첨단 IT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플랫폼' 노동, 또는 '녹아내리는 노동'이라고 한다. 작업장과 작업장 아닌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산과 휴식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며, 고용주와 노동자 및 소비자의 경계도 흐려진다. 명확한 것은 오로지 이익과 손해 발생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책임', '자기관리'이다.

강도들에게 택배물품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통통부는 얼굴로 병원대기실에 앉아있는 리키에게 택배회사 매니저는 리키의 안부보다 파손된 택배물품의 배상을 통지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 6일 하루 14시간씩 당신을 위해 일해요. 당신 밑에서요. 그게 무슨 자영업이예요? 회사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울부짖던 애비의 모습이 내내 긴 여운을 남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영국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 노동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이 자기책임 아래 과도한 노동을 하다가 교통사고와 각종 산재를 당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교통위반을 하며 악착같이 벌어도 수수료, 벌금을 떼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노동의 고됨을 배신한다.

"피하고 싶었던 적나라한 현실과 마주한다. 세상 모든 노동자는 같다. 무너져 내린다. 무엇이 남을까? 가족은 지켜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은 아프게도 하나 같이




주인공 리키 터너는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며 택배일을 한다.

삶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다.

### 누가 나를 쓸모없게 하는가

현대자본주의사회의 병폐를 일찍이 날카롭게 분석한 이반 일리치는, 거대 기술과 전문가 권력이 사회를 억압하고 지배하면서 대중은 점점 더 무력해져 왔고, 자본주의의 풍요에 맹목적으로 기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것을 '현대화된 가난'이라고 부르면서 "자율은 무너지고, 기쁨은 사그라지고, 경험은 같아지고, 욕구는 좌절되는 과정"이며 "플러그처럼 시장에 꽂혀 평생을 생존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하다 해고되는 '긱(Gig) 이코노미'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첨단과학기술이 더욱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며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첨단 기술들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삶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적 노동, 더 많은 자율과 풍요를 가져오게 하려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할 것인가.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해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율과 회복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복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택배물품을 주인에게 배달하지 못했을 때 남긴 메시지 'Sorry, We Missed You'는 이 영화의 원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

다시 이반 일리치가 던졌던 질문들이 되살아나 쿡에 맴돈다. "누가 나를 쓸모없게 하는가." 

## 연합회 소식

### 2020 신년예배



한국YWCA 신년예배가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1월 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민지 목사(NCKC인권센터)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YWCA가 가장 온전케 되길 소망하는 것'에 대한 나눔을 했다.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찬양하며 주의 약속 굳게 믿고 나아갈 것을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참조)

### 제21대 총선 대응 정책워크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한국YWCA 정책의제를 위한 워크숍이 1월 8일(수) 연합회에서 진행되었다. 5부 지역 11개 회원 YWCA 회장, 사무총장, 담당 실무활동가 14명, 연합회 실행위원과 중점운동 실무활동가들 총 22명이 참석하여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각 지역 활동방향을 공유했다. 지난 12월 열린 1차 워크숍에 이어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부문별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2월 각 당과 후보자들에게 YWCA 정책 의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13쪽 참조)

### 돌봄직종 담당 실무활동가 모임

YWCA 돌봄과살림 담당 실무활동가 모임이 1월 9일(목) 24개 회원YWCA 30여 명의 실무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사노동자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이슈들'을 주제로 한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강의에 이어 회원YWCA의 돌봄과살림 현황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급성장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YWCA의 운동관점 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 Y-틴 전국협의회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8일(수)부터 9일(목)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약 120명의 Y-틴과 지역, 연합회 실무활동가가 참여했다. 2020년 Y-틴 중점운동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선정되고 전국협의회 임원단이 선출되었다. YWCA 청소년리더십특강과 2019년 지역별 활동을 공유했다. 2020년은 Y-틴이 일상에서 연대하며 여성과 평화 이슈를 펼쳐내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32-33쪽 참조)

### 제19회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제19회 한·일YWCA청소년협의회가 1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연합회와 서울앤호텔에서 열렸다. 양국의 성평등 사회와 미투 운동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YWCA 청년대표 15명, 일본 청년대표 18명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혐오와 한·일 #미투운동' 주제발

표, 국가별보고, 현장탐방(성평등도서관 '여기/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한·일YWCA액션플랜 만들기, CSW64 한·일YWCA 워크숍 기획 등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34~36쪽 참조)

**제248차 불의날 탈핵캠페인**

제248차 불의날 탈핵캠페인이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1월 28일(화) 연합회관 앞에서 열렸다. 청소년 캠페이너들이 핵의 위험성, 원자력에 대한 거짓신화, 탈핵 필요성 등에 대한 호소문을 직접 작성해 시민들에게 외쳤다. 캠페이너들은 정부와 어른



세대들에게 “지금 당장 편한 삶을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19. 12. 1 ~ 2020. 1.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 인	김시은, 김우중, 오경혜, 유성희, 한송이	240,000
회원YWCA	김해YWCA, 목포YWCA, 안양YWCA	1,280,000
2019년 12월 모금액		1,520,000
누계		19,504,624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 인	배창빈, 송기영	3,550,000
2020년 1월 모금액		3,55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12. 1 ~ 2020. 1.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9. 10. 1 ~ 2019. 11. 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박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돌림수련,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임희,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장미란, 차경애, 천유란, 채정희,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515,000
개인기부	송재근, 이형대, 양선희, 주락현, 최아이크, 익명, 이종경	1,306,600
회원YWCA	강릉, 거제, 광주, 군산직할지부, 김해, 남양주, 논산, 대전, 목포, 부산,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익산, 원주, 인천, 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하남	22,348,362
YWCA 어린이집	원주어린이집, 청주어린이집	22,390
협력 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선교회, 하늘가족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560,000
기관 및 단체	명성약국, 르뱅(명동성당점), 알파문구, 에세레젤라또(명동점), 전광수커피, 해피빈기부금	73,510
합계		27,192,352

**안태근 전 검사장에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한다**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정기사무감사, 2015년 정기인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줬다. 이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용기 낸 증언 ‘미투’(#MeToo)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할 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서지현 검사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우리 사회 만연한 가부장제 문화와 서열적 위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태근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본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법리적 판단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고질적인 2차 가해이자 피해 사실을 은폐시키는 도구이다. 조직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 아래 가해자는 비호되고,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조직을 떠나야만 했던 상황들은 우리 사회 ‘메뉴얼’처럼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곳보다 정의로운 판결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하며, 가해자의 명백한 위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존재했음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YWCA는 52개 지부(회원YWCA)와 함께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적극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전국 YWCA가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보여줬다. 한국YWCA는 파기환송심에서 하루 빨리 사법정의를 실현되기를 바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년 1월 10일  
한국YWCA연합회

## 경기지역

###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고양YWCA는 1월 2일(목) 문촌9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이사와 직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예배를 드렸다. 강희수 목사(갈 현성결교회, 서울신학대 교수)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며, YWCA가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YWCA의 사명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 광명YWCA-YMCA 신년공동예배



광명YWCA는 1월 2일(목) 광명YMCA에서 자원, 실무활동가들과 함께 신년공동예배를 드렸다. 2020년을 정숙자 회장의 기도로 시작하고, ‘패러다임의 변화,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승봉 목사의 말씀 나눔이 있었다.

### 남양주YWCA

이중은 팀장

#### 제24회 정기총회



남양주YWCA는 1월 21일(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사와, 실무활동가, 회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2019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및 2020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우수협력기관 감사패 수여와 우수직원상, 신입이사·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지난 임기에 수고한 하행여 회장과 손애령 총장께 공로패와 직원들이 준비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 수원YWCA

강은진 간사

#### ‘미세먼지 제로 어린이 활동가’ 임명식



수원YWCA는 12월 21일(토) 학생 및 학부모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꿈의학교에서 ‘내가 GREEN 지구’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을 축하하며 ‘미세먼지 제로 어린이 활동가’를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가족이 단합하여 환경과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를 태블릿으로 풀어보는 ‘도전! 가족 골든벨’을 진행했다.

### 안산YWCA

홍지인 팀장

#### ‘안청집 Coming-of-Age Day’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1월 18일(토)에 ‘안청집 Coming-of-Age Day’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 2부에 걸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스무 살 체육대회 및 백일장, 스무 살 파티 등을 진행하며 안산시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안양YWCA

신재화 간사

#### 사무총장 이취임식



안양YWCA는 1월 14일(화) 안양YWCA 강당에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수고한 박동순 7대 사무총장의 헌신에 감사하고, 박현숙 8대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했다. 박동순 사무총장은 이임인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박현숙 신입 사무총장은 무거운 직책을 맡았으나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의정부YWCA는 경기도로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기북부 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과 서울 노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월 6일(월)부터 15일(수)까지 1차 교육을 진행해 20명이 수료했다. 중장년 여성들에게 매우 주목받는 직종으로, 교육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돕고 있다.

### 하남YWCA

김상미 간사

#### 일일차집



하남YWCA는 12월 11일(수) 하남시청 앞 설빙에서 하남YWCA 일일차집을 열었다. 지역관계자들이 참석해 일일차집 행사를 격려하고 후원했다. 일일차집을 통한 기금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섬김과 돌봄을 위해 사용되며, 일부 수익금은 북한어린이 돕기와 불우이웃돕기에 후원했다.

## 동부지역

### 거제YWCA

심은옥 간사

#### 도서관 업무협약



거제YWCA가 운영하는 모오리돌작은도서관과 거제도서관이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독서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월 21일(토) 업무협약을 맺었다.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기증 및 현장업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앞으로 우호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김해YWCA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월 2일(목)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해YWCA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예비교육 및 기업체 발굴을 통한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WIN WIN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다. 앞으

## 회원YWCA 소식

로도 김해지역 여성들의 리더십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YWCA

김보현 간사

#### 성탄축하예배



대구YWCA는 12월 19일(목) 회원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드렸다. 파릇 장예인 무용단의 공연과 성악팀의 감동적인 공연으로 회원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성탄축하예배가 되었다.

### 마산YWCA

한혜경 부장

#### 갈마페스티벌



마산YWCA는 12월 24일(화) 마산 가포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직종체험 '가포고&마산YWCA 갈마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방학기간 중 청소년 스스로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체험부스를 지원했다.

### 부산YWCA

김예은 간사

#### 시무예배

부산YWCA는 1월 2일(목) 자원·실무활동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부산YWCA 시무예배를 드렸다. '희망나무가 다 뽑혔어도 희망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김대훈 목사(초량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부산YWCA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를 위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부산YWCA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신년예배



사천YWCA는 1월 6일(월) 자원·실무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숙 회장의 인도로 신년예배를 드렸다. 참석자와 각 부속기관별로 새해 다짐의 글을 읽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 양산YWCA

조은진 간사

#### 신년하례회



양산YWCA는 1월 14일(화) 자원·실무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진행했다. 1부 신년예배에서는 '므낫세로 끝내고 에브라임으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안종관 목사(벤엘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2부는 이사, 실무활동가들의 친교의 시간으로 덕담을 나누었다. 돌봄과 나눔의 정의평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울산YWCA

김예린 간사

#### 신년하례회



울산YWCA는 1월 14일(화) 문수컨벤션에서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여는 예배로 시작하여 YWCA 활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새해시 낭송, 첼로·소프라노 축하공연, 인사말씀과 축사, 덕담 등을 진행했다. 서정순 회장은 "청년의 정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YWCA와 함께 건강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 진해YWCA

이재경 부장

#### 사무실 이전 현판제막식



진해YWCA는 12월 31일(화) 연합회의 일대일 펀드매칭 자립 지원으로 새로운 사무실(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66 경남동부 신협3층)로 이전해 현판제막식을 열었다. 진해YWCA 자원·실무활동가와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진해YWCA를 격려했다.

### 창원YWCA

김진아 간사

#### 실무활동가 워크숍



창원YWCA는 12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실무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며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20년에는 회원을 주제로 하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창원YWCA가 될 것을 다짐했다.

### 통영YWCA

변은실 팀장

#### 회장 이취임식



통영YWCA는 1월 30일(목) 통영YWCA 다목적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심전력 수고해주신 원필숙 회장의 이임사 및 임봉선 신임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배운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축사, 하모니카 축하공연, 공로패 수여, 케이크커팅 및 단체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봉선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YWCA목적에 맞게 통영의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 힘쓸 것"을 강조했다.

### 포항YWCA

김민경 간사

#### 가정폭력 가정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포럼



포항YWCA 부속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소망의집이 개소 21주년을 기념해 12월 27일(금) '가정폭력 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진행된 포럼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가정폭력 가정의 회복과 폭력 재발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마

## 회원YWCA 소식

런됐다. 장혁란 교수(포항대 사회복지과)가 사회를 맡고, 금명자 교수(대구대 심리학과)가 좌장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윤은하 과장(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 김창수 과장(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남순 소장(포항생명전화가정폭력상담소), 장영순 소장(포항다문화쉼터 소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각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열린 토론을 펼쳤다.

## 북부지역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시무예배



강릉YWCA는 1월 2일(목) 강릉YWCA 비전홀에서 자원·실무활동가 20여 명이 시무예배로 새해를 시작했다.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 하길 기도하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동해YWCA

전민지 팀장

#### 정기총회



동해YWCA는 1월 16일(목) 회관 대강당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2019년 동해YWCA가 걸어온 길을 회원들과 함께 결산하고, 2020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 계획을 알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힘쓸 것을 다짐했다.

### 서울YWCA

성지희 간사

#### 신년예배



서울YWCA는 1월 2일(목) 자원·실무활동가들이 함께 신년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열었다. '일어나 뻔엘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노병균 목사(인천초원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위기 속에 직접 관여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오늘날 술한 어려움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뻔엘로 올라가라, 정결하라,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다"고 말했다.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은 뻔엘에 올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 속초YWCA

김혜연 간사

#### 성탄예배



속초YWCA는 12월 19일(목) 속초YWCA 강당에서 이사와 실무활동가들 20여 명이 성탄예배를 드렸다. '동방박사들을 제목으로 양형철 목사(살롬교회)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선물교회 및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 원주YWCA

김민영 간사

#### 돌보미의 밤



원주YWCA는 12월 12일(목) 원주YWCA 돌보미의 밤을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살림·산모 돌봄 회원을 위한 시상과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 인천YWCA

박희은 간사

#### 메리Y페스티벌



인천YWCA Y-틴과 대학·청년Y가 12월 21일(토) 메리Y페스티벌 시간을 가졌다. 성탄을 맞이하여 한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대학·청년Y와 Y-틴 간의 친목을 다졌다. 2019년의 다양한 활동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2020년 활동을 응원했다.

### 춘천YWCA

허현주 간사

#### 다운합창단 공연



춘천YWCA 다운합창단은 1월 15일(수) 강원도재활병원을 방문해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섬김의 공연을 열었다. 다운합창단은 김영자 춘천Y 이사가 지휘를 맡고 23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합창단은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하며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연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서부지역

### 광양YWCA

이현숙 간사

#### 정기총회



광양YWCA는 1월 22일(수)에 광양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제29회 광양YWCA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권영민 목사(주영광교회)의 '창조신앙과 생명운동'을 주제로 한 말씀으로 시작했다. 10여 년 이상 봉사한 단체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2019년 사업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 심의 등으로 진행했다.

### 광주YWCA

윤정순 관장

####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 제8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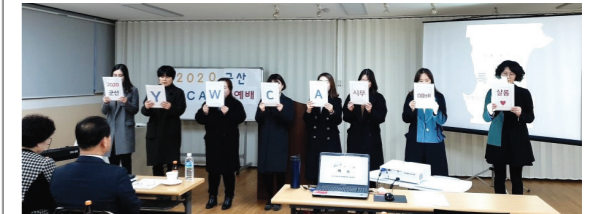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 제8차 정기총회가 기념사업회 고문, 자문위원, 이사,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0일(월) 조아라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박경린 이사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총회사, 내빈소개, 회순통과,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감사보고,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에도 조아라 선생 정신계승사업 및 기념관 운영을 통하여 비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조아라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며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군산YWCA

박은정 사무총장

#### 시무예배



군산YWCA는 1월 7일(화)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군산YWCA 본부 및 각 부속시설 자원·실무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하여 시무예배를 드렸다. 나신환 목사(군산성교회)의 '일어나 네 빛을 발하라'는 주제 말씀으로 군산Y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활동가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Y안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창립을 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군산Y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회원YWCA 소식

###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회관 개관식 및 통합상담소 확장이전 기념식



남원YWCA 회관 개관식 및 통합상담소 확장이전 기념식이 12월 12일(목) 남원YWCA 민들레관에서 개최되었다. 연합회 연영수 회장과 남원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사, 축사,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 장학금 전달식, 현관식,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했다. 인영희 남원YWCA 회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여성, 사회적 모든 약자들을 위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직원 신년예배·시무식



목포YWCA는 1월 6일(월) 회관 강당에서 본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직원 신년예배·시무식을 가졌다. 예배 후 2019년 활동영상을 시청하고, 정이숙 회장의 축하인사말씀, 각 기관별 다짐 발표에 이어 개인별 말씀카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목포YWCA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3대 중점운동을 공유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신년예배 및 시무식

서귀포YWCA는 1월 2일(목) 대강당에서 자원·실무활동가



30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예배 및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상호 목사(서귀포중앙교회)의 말씀나눔으로 서귀포YWCA가 책임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신년덕담을 나누고, 더욱 희망찬 서귀포YWCA가 되고자 이사, 실무활동가들 모두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순천YWCA

신정옥 간사

#### 아이들보미 집담회 및 송년회



순천YWCA는 12월 19일(목) 순천 파티움하우스에서 아이들보미 137명과 순천YWCA회장, 실무활동가, 내빈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담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한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2020년도에는 돌보미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여수YWCA

김혜영 간사

#### 성탄 예배 및 자선 경매



여수YWCA는 12월 20일(금) 회관 강당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본부와 부속시설실무활동가, 이명자 회장을 비롯한 이 사들이 참석하여 성탄을 축하하고,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의 말씀 선포와 축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강형규 여수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이사 및 직원들이 후원한 물품 경매가 이어졌다. 이 경매의 모든 수익금은 2022년 여수YWCA 창립 40주년 기념 청소년 장학금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익산YWCA

김다영 간사

#### 합창단 신년워크숍



익산YWCA 합창단은 1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제주에서 신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익산YWCA 합창단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법환교회 찬양 인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합창단의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신년예배



전주YWCA는 1월 6일(월) 전주YWCA 회관에서 자원·실무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를 드렸다. 권경미 회장의 인도로 양인석 목사(강림교회)의 ‘민족을 웃게 한 여인’ 말씀 선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직원 특송, 북한어린이 돕기 봉헌시간을 가졌다. 이어 떡국을 나누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 제주YWCA

박슬기 간사

#### 시무예배

제주YWCA는 1월 3일(금) 본관 강당에서 시무예배를 진행했다. 실무활동가와 이사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의 소망을 나누고 ‘소망나무’에 기도제목을 적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부지역

### 논산YWCA

조아영 간사

#### 세움 청소년 콘서트



논산YWCA는 12월 18일(토) 한빛교회에서 논산YWCA와 논산시기독교연합회 공동 주최로 ‘청소년 세움 콘서트-헤리티지&매스콰이어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열었다. 25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위심으로 흥겨움과 기쁨이 가득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YWCA 기독교운동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대전YWCA 불(火)의날 캠페인 200회차 특별집회



대전YWCA는 매주 화요일 원자력연구원 앞 사거리에서 불(火)의 날 탈핵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1월 21일(화)에 200회차를 맞이하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회원 50명과 함께 대전YWCA 불(火)의 날 캠페인 200회차 특별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200회차 특별집회에서는 하나로원자로 폐로를 위한 탈핵운동과 함께 핵발전소를 없애자는 풍선퍼포먼스도 이루어졌

## 회원YWCA 소식

으며, 다음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핵발전소 제로시대를 만들어가자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세종YWCA

허미정 부장

#### 세종YWCA 교육협동조합 창립총회



세종YWCA교육협동조합 창립총회가 1월 17일(금)에 열렸다. 조합원 8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평화통일, 환경, 성평등, 사회적경제, 안전 등의 분야를 연구하여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김혜선 세종YWCA 청소년부 위원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제천YWCA는 12월 23일(월) 문화의 거리에서 이사, 실무활동가들과 함께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제공한 수면 양말을 나눠주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호소했다. 또한 상가를 방문하며 문닫고 영업하기, 영업 종료 후 간판등, 옥외조명 소등하기 등 에너지 절약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쳤다.

### 천안YWCA

박미숙 팀장

#### 후원금 전달

천안YWCA는 1월 21일(화) 천안YWCA 정기총회에서 창립 30주년 후원음악회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 6백만 원을 지역사회 청년과 다문화 청소년 가정, 천성중학교 Y-틴 동아리에 전달했다. 천안YWCA는 본부를 중심으로 천안YWCA여성인력개발



센터, 천안YWCA센터, 천안YWCA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 청주YWCA

한기연 간사

#### 모금콘서트



청주YWCA는 12월 3일(화) 청주CJB미디어센터 에텐아트홀에서 '내마음의 품귀'이라는 제목으로 청주YWCA모금콘서트를 열었다. 장필순과 동물원의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시민 900명이 참석했다. 모금콘서트를 통해 청주YWCA의 운동과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충주YWCA

이예림 간사

#### 청소년진로토크쇼



충주YWCA Y-틴 진로동아리인 '진로푸실'은 12월 14일(토) 충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로푸실과 함께 진로 찾기'라는 주제로 청소년진로토크쇼를 진행했다. 1부 설문조사 결과 발표, 2부 패널과의 질의응답, 3부 바른 진로 선서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청소년들의 솔직한 진로고민을 듣고, 현장에서 고민들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 조언 등을 피드백했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YWCA가 함께함을 알렸다.

#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The 18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숨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격려해온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제18회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 |              |  |  |
|--------------|--|--|
| 시상부분         | 가. 대 상   | 나. 젊은지도자상  |
| 추천대상 및 자격    | 가. 대 상<br>전문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나. 젊은지도자상<br>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만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br>* 단 본 상과 유사한 상의 수상경력자는 제외함<br>* 해당 부문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상자가 될 수도 있음 |
| 시상내용         | 가. 대 상 상패, 상금 3천만 원  | 나. 젊은지도자상 상패, 상금 2천만 원<br>*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균분하여 수여함  |
|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가. 발표 2020년 3월   | 나. 시상 2020년 4월 21일(화)  |
| 접수 방법 및 기한   | 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나. 2020년 3월 2일(월) 우편접수 마감 당일 소인 유효   |
|              | 다. 제출서류 및 서식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ywca.or.kr">http://www.ywca.or.kr</a>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TEL 02-774-9703)로 문의바람  |  |